■ 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13-242.
http://doi.org/10.17948/kcs.2023..100.213

유협의 『문심조룡』에 함유된 주요 易學 思想 분석* **

조희영(曺喜寧)***

목 차

1. 글머리에
2. 공자역[易傳] 사상
3. 漢易 사상
4. 하도낙서 사상—圖書(象數)學
5. 마무리

국문초록

유협의 『문심조룡』은 중국 최고의 경전적 문학이론서로 후대에 끼친 영향이 심대하다. 그는 문학 뿐 아니라 易學에도 정통했다. 유협이 살아온 삶의 궤적은 특이하다. 그는 당시 위진현학의 도가시대임에도 불가에 의탁했다. 비록 절에 기거했지만 공자를 머리에 두고, 儒學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마지막은 승려로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유협은 유불도를 넘나드는 회통적 자세로 일생을 살아왔고 그 과정은 역동적이었다. 그런 회통성과 역동성을 자산으로 『문심조룡』이란 위대한 문학서를 후세에 남겼다. 『문심조룡』의 기본론은 1편 원도, 2편 징성, 3편 종경, 4편 정위, 5편 변소이며 이를 '문학의 근간[文之樞紐]'라 했다. 이때 성인은 유가의 성인—공자—이고 경전은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 5경 혹은 6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역학 사상은 『문심조룡』의 기본론에 깊이 함유되어 있는데, 공자역[易傳] 사상과 漢易 사상, 하도낙서 사상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공자역 사상이 두드러진다. 유협은 또한 공자 사상의 범주에 있으면서 공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도낙서를 중시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3775)
** 이 글은 2022. 2. 25. 한국주역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공자역과 하도낙서 둘 사이에 한역 사상이 있고 특히 『역위』를 중요하다고 봤다. 이 세 가지 역학 사상은 서로 연결된 易理 체계이자 유관한 지적 기반으로, 이 책의 순수 문학성을 고양시키고 철학성을 심도 있게 이끌어내어 경전적 문학서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협은 왜 『주역』과 공자를 이 책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으로 삼는가. 그는 『주역』에는 천지 終始에 대한 해답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에 대한 성찰이 있으며, 이를 통해 天人合德을 추구하는 그것이 창작의 본바탕인 '문심'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占書인 『주역』을 철학서로 재탄생시켜 이를 완성한 인물이기에 유협은 공자 사상을 『문심조룡』의 문학적・철학적 사상의 큰 축으로 삼았다. 요약하면, 유협은 문학에다 유가 경전의 으뜸인 역학 특히 공자역[공자 사상 포함]과 공자가 집대성한 오경 등을 잘 녹여서 이 책을 지은 것이다. 현재 문학계에서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학계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본 글이 『문심조룡』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역학계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협, 『문심조룡』, 공자역[易傳], 漢易, 하도낙서.

1. 글머리에

劉勰(465-521, 字 彦和)[1]은 南朝 齊・梁나라 사람으로 501년에 四六騈儷體로 『文心雕龍』을 지었다. 『문심조룡』은 중국문학사상 최초의 문학이론서로서 魯迅은 서양문학 이론의 원조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쌍벽을 이루는 동양문학 이론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인 문학비평의 범주가 아닌 중국문화의 경전적 저작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학계에서는 '龍學'이라고 부른다고까지 극찬하고 있다.[2] 이 책에 대한 논저가 1907-2005년까지 6,517편[3]이라 하니 '용학'이란 말도 가능하다. 『문심조룡』이 저작된 시기는

1) 유협의 生沒에 설이 분분하나 范文瀾의 『文心雕龍注』에 따른다. 江蘇省 鎭江 사람이며 어려서 부친을 잃고 집이 가난하여, 定林寺 승려 僧祐에게 의지하여 글을 읽었다. 10여 년 뒤 불교 경전에 정통하게 되었다. 이때 유가의 경전도 함께 硏鑽한 듯하다. 30여 세에 3만 7천 글자의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을 본 沈約은 文理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이후 奉朝請, 臨川王의 記室을 지냈고, 蕭統 太子 記室이 되었다. 그의 나이 55세[519년경] 정림사 승우가 卒하자 불경 정리를 위해 정림사로 돌아왔고 불경 정리 후 승려[법호 慧地]가 되었으나 곧바로 57세로 卒하였다. 평생 혼인하지 않았다.

2) 유협 저, 김관웅・김정은 역, 『문심조룡』, 을재, 2016, 271면.

3) 중국인 척량덕의 '문심조룡분류색인'에 의한 통계이다. 성기옥, 「『文心雕龍』의 성립배경과 후인들의 연구과정 고찰」, 『중국문학이론』 11・12, 중국문학회, 2009, 38면. 국내 연구 논저가 포함되었는지

문학이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구축되던 문학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秦代까지 '문학'에서 '문'은 문장, '학'은 학술[博學]의 2가지 의미를 가졌다가, 漢代에는 예술작품을 '문장', 학술작품을 '문학'이라 했다. 그러나 南朝에 와서 문학과 문장의 의미가 합쳐지면서 문학은 학술[博學]과 결별하여, 문학은 '문장학', 문장은 '문학 작품'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 비로소 문학은 사학[四學:儒・道・文・史]의 하나로 독립하고 '문학'에서 '학술'의 의미는 소실된다. 『문심조룡』의 편제를 보면, 총 50편이며 대별하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4] 1부는 핵심론으로 1편 原道, 2편 徵聖, 3편 宗經, 4편 正緯, 5편 辨騷이다. 2부는 장르론으로 6편 明詩-25편 書記이다. 3부는 문예원론으로 26편 神思-49편 程器이다. 4부는 서문으로 50편 序志로 구성되었으며, 이 책의 핵심은 1편 원도와 50편 서지라 할 수 있다.

저술 취지가 담겨 있는 50편 서지에서 유협은 "문심이란 문학하는 마음씀을 말한다. (…) 예부터 문장은 아름답게 서술하는 것으로 문체로 삼았는데, 어찌 추석이 많은 말로 용을 새기듯 아름답게 꾸미는 데서 취한 것이겠는가"[5]라 했다. 즉 '문심'은 작품을 쓰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조룡'은 문심이 일으킨 문장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서술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화려하게 꾸며 낸 문장은 경계하고 있다. 문심에서 '문'은 어떤 뜻이고 '문학'과는 어떤 관계인가. 유협은 '문'을 광의와 협의로 사용하는데 광의로는 모든 문장, 협의로는 五經같이 문채가 정제된 문장이라 하고 둘 다 필요하지만 지향점은 문채가 정제된 문장이라고 했다.[6] 문심에서 '심'은 어떤 것인가. 그는 涓子의 『琴心』과 王孫의 『巧心』을 보고 '마음이란 아름다운 것[心哉美矣]'[7]이라 했다. '문학하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국내는 1992년 팽철호(국민대)가 첫 논문을 발표했고 이어서 김민나(서울여대), 배득렬(충북대) 등이 연구하고 있다.

4) 김민나, 「『文心雕龍』第五十 序志篇 譯註」, 『중국어문학지』 21, 중국어문학회, 2006, 419-421면.

5) 『文心雕龍』 序志第五十, "夫文心者, 言爲文之用心也. (…) 古來文章, 以雕縟成體, 豈取騶奭之群言雕龍也" 范文瀾은 추석의 글을 "言騶奭修飾之文, 若雕龍文也."라 했다. 劉勰 著, 范文瀾 註, 『文心雕龍注』 下冊, 商務印刷館出版(홍콩), 1960, 728면. 騶奭은 騶衍과 함께 전국시대 음양가로 오행설 주창자로 추측된다. 추석이 지은 문장의 빼어남이 마치 용을 조각해 놓은 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6) 성기옥, 앞의 글, 12면; 팽철호, 앞의 글, 135면. '문학'은 '글쓰기'라 할 수 있고, 『문심조룡』은 '좋은 글쓰기 방법론[문학창작론]'을 저술한 책이라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7) 『文心雕龍』 序志第五十, "昔涓子琴心, 王孫巧心, 心哉美矣, 故用之焉."

아름다운 마음[文心]'으로 천지자연을 묘사하고 인간사 다양한 일들을 글로 지으면 그 문장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유협이 문장의 전범으로 여기는 공자의 「문언전」을 정의한 '천지의 마음[文言, 言之文也, 天地之心哉]'이 그것이다. 이런 문장만이 뭇 세월을 견디며 금석보다 단단하게 살아남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학책인 『문심조룡』과 易學[周易][8]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원도는 이 책의 문호이자 근본정신을 천명한 부분으로 道心에 근원하여 창작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도심은 창작하는 마음의 본바탕으로 바로 문심이며, 여기에 『주역』의 경문과 공자가 지은 十翼[易傳]이 지닌 문학성과 철학적 심오함이 녹아들어 있어서 둘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협은 왜 『주역』과 공자를 이 책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으로 삼는가. 유협은 『주역』에는 천지 終始에 대한 해답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에 대한 성찰이 있으며 이를 통해 天人合德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창작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기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공자는 占書인 『주역』을 철학서로 재탄생시켜 이를 완성한 인물이기에 유협은 공자 사상을 『문심조룡』의 문학적・철학적 사상의 큰 축으로 삼은 것이다.[9]

본 글의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역학적 관점'에서 『문심조룡』에 함유된 역학 사상을 분석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문심조룡』에 인용된 『주역』의 경문과 십익은 상당한 양이고 중국 등에서는 역학적 연구 실적이 많으나 국내에서는 다룬 바가 없다.[10] 또 하나는 학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책 전반에 흐르는 역학적 사유의 큰 줄거리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문학과 관련된 미세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차후로 미루도록 한다.[11]

---

8) 본 글에서 '易學'과 '『周易』', '易經'은 동의어로 보고 혼용한다.

9) 그러나 이에 대해 중문학 전공자들의 강력한 반론도 있다. 유병갑, 「≪文心雕龍≫<原道>篇研究」, 『中國語文論叢』 85, 중국어문학회, 2018, 157-160면.

10) 在中학자들이 국내 학술대회에서 역학적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내용은 소략하고 논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김관수 (东北师大), 「'大衍之數'와 ≪文心雕龍≫의 체계」,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7, 195-200면. 이 논문에서 김관수는 "《文心雕龍》은 사물의 상호 관계와 변화・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역의 우주론을 기반으로 저술되었다."라 했다. 王小盾, 「≪文心雕龍≫和≪周易≫的關係」, 『중국문학이론』 5,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5, 37-48면.

〈표 1〉『문심조룡』에 인용된 『주역』 내역[12]

구 분	인용 횟수	비 율	총 비율
괘 사	5	2.4%	2.4%
효 사	8	13.6%	16.0%
계사전	92	44.7%	60.7%
단 전	38	18.4%	79.1%
상 전	16	7.7%	86.8%
「문언전」	15	7.3%	94.1%
설괘전	9	4.4%	98.5%
서괘전	2	1.0%	99.5%
잡괘전	1	0.5%	100%
합 계	204		

필자는 『문심조룡』의 주요 역학 사상으로 1. 孔子易 思想 2. 漢易 思想 3. 河圖洛書 사상—圖書(象數)學을 꼽는다. 그 이유는 이들 사상이 명확하게 책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각각의 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문심조룡』 수용 양상도 간단히 살핀다.

2. 공자역[易傳][13] 사상

먼저 '공자역 사상'이란 공자가 지은 「계사전」을 포함한 십익의 사상과 내용이 『문심조룡』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고 한 말이다. 이어지는 한역 사상과 하도낙서 사상도 동일한 기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본론에 들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유협이 처한 상황과 사상적 배경에 대한 것이다. 그는 위진 현학시대 사람이니 도가, 현학의 풍속 가운데 있었고, 10여 년간

11)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유협의 역학 사상이 개별 문학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과 각 장의 문학적 내용과 역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등 미세한 부분—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익명의 심사자께서도 "『문심조룡』의 전체 저술의 각장의 내용이 지니는 문학적 의미와 역학적 내용이 어떤 상관적 의미를 갖는가를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고견을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12) 이 표는 洪增宏(대만), 『道沿聖以傳經—《文心雕龍》反饋《周易》關係研究—』, 元華文創股份有限公司(臺北), 2017, 329-330면에서 발취한 것으로 괘효사, 십익이 문장 중에 인용된 것을 누계한 것이다.

13) '孔子易'이란 십익[易傳]을 공자가 지었다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희역[괘상], 문왕역[괘사], 주공역[효사], 공자역[역전] 四聖之易으로 나눌 수 있다. 주자와 왕부지 등의 관점이다.

定林寺에 기거하면서 僧祐 스님을 도와 불경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儒學을 병행하다가 『문심조룡』을 저작했다. 이처럼 그는 유불도의 영향 아래 이 책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어들 예를 들면, 도, 자연, 천지, 신, 음양 등은 유가나 역학, 道佛의 독점물도 아니며 문학가의 전유물도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이런 개념어, 나아가 유협의 기본 사상에 대해 논할 때 개인적 시각에 따라 그 관점이 극명하게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은 역학적 관점에서 『문심조룡』을 독해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이 책에 나타난 그의 문학사상에 대해서이다. 그는 서지편에서 "『문심조룡』을 지은 것은 도[14]에 근본하고 성인에서 배우고 경전을 본체로 하고 위서를 참작하여 離騷에서 변했으니 문학의 근간[根幹: 文之樞紐]을 다 추구했다."[15]고 했다. 즉 문학의 근본이 도, 성, 경, 위, 소 다섯 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팽철호는 '문지추뉴'는 각기 원도, 징성, 종경, 정위, 변소 다섯 편으로, 앞의 네 편은 사상적 색채가 강한 유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문학과 관계가 없다. '변소'편 초사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문학을 추구한 것으로 그래서 '초사에서 변한다[變騷]'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팽철호는 '변소'에 와서 비로소 유가철학서에서 문학이론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16] 유협의 문학에 대한 기본 사상이 무엇인가에 논란이 많지만[17] 이 책을 지을 당시는 유가 사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18]

본 장은 『문심조룡』에 나타난 3가지 역학 사상 가운데 첫째인 '공자역 사상'에 대해서이다. 먼저 유협은 공자를 어떻게 보는가. 다음 두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14) 여기서 말하는 '道'란 무엇인가에 많은 학설이 있다. 철학적인 도인가 문학의 도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儒家의 도, 道家의 도 혹은 유도를 합한 도로서, 유가사상이 중심이고 도가사상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 혹은 광의로는 자연의 도이고 협의로는 유가의 도라는 설 등등이 있다. 또 유협의 도는 自然之道로 자연 자체라는 주장이 권위 있는 견해라는 주장도 있다. 유병갑, 앞의 글, 156-157면 참조.

15) 『文心雕龍』 序志第五十, "蓋文心之作也 , 本乎道 , 師乎聖 , 體乎經 , 酌乎緯 , 變乎騷 , 文之樞紐 , 亦云極矣."

16) 팽철호, 「『文心雕龍』 번역의 한 가지 모델」, 중국학논총 23,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2007, 171-173면 참조.

17) 김민나는 유협이 문학을 논의하는 기본 입장은 '절충'이라 한다. 序志편에 '唯務折衷'이란 말이 나온다. 김민나, 앞의 책, 441면. 혹자에 따라 儒佛道가 기본 사상이라거나 儒道가 기본이라 하거나 佛을 기본으로 보기도 한다. 팽철호는 '절충'은 유협의 『文心雕龍』 저술 태도라고 한다.

18) 팽철호, 앞의 글, 179면.

① 공자께서 성인을 이어서 홀로 先哲들을 능가하였다.
② 내가 일곱 살 때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구름을 보았고 올라가서 그것을 얻는 꿈을 꿈 적이 있다. 삼십이 넘어서는 붉게 칠한 제기를 들고 공자를 따라 남방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깨었을 때 몹시 기뻤다. 위대한 성인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하찮은 자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인류가 생긴 이래 공자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19]

위 둘을 하나로 합치면, '공자는 앞선 성인들을 능가하고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 할 수 있다. 어떤 유가 철학자도 공자를 이렇게 칭송한 사람이 있었나 싶다. 공자의 위치는 유가 성인의 계보로 따지면 '요-순-우-탕-문-무-주-공'에서 8번째이고, 역학에서도 '복희-문왕-주공-공자'로 맨 아래 자리인데, 유협은 지나치리만큼 공자를 존숭하고 있다. 그러니만치 이 책에는 공자가 손댄 오경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주역』의 경문과 십익을 언급하여 자신의 공자역 사상을 드러낸다. 특히 〈표1〉에서 보듯 공자역[역전]의 비중은 인용된 『주역』 전체의 80%를 넘고 그중에서 「계사전」이 절반을 넘는다. 「계사전」이 공자역을 대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

1) 1편 원도에 나타난 공자역 사상

1편 원도는 앞에서 말했듯 이 책의 근본정신을 밝힌 부분이다. 이는 '문학원리론'으로 나머지 49편을 총괄한다는 의미이다.[20] 1편 원도의 어떤 부분에 역학적 요소 특히 공자역 사상이 함유되어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보자. 아래 글은 책의 시작 부분으로 첫 번째 사례이다.

문의 덕[힘, 작용력, 효용]은 크다. 그것이 천지와 함께 생겨난 것은 어째서 그러한가? 대저 검은 하늘과 누런 땅은 색이 어울리고, 네모나고 둥근 모양으로 나뉘었다.

---

19) 『文心雕龍』 原道第一, ①"至夫子繼聖, 獨秀前哲." 『文心雕龍』 序志第五十, ②"予生七齡, 乃夢彩雲若錦, 則攀而採之. 齒在踰立, 則嘗夜夢執丹漆之禮器, 隨仲尼而南行 ; 旦而寤, 迺怡然而喜, 大哉聖人之難見哉, 乃小子之垂夢歟 ! 自生人以來, 未有如夫子者也."

20) 河運清, 「劉勰의 文學理想論考」, 『中國語文學』 39, 중국어문학회, 2002, 161-164면 참조.

> 해와 달은 구슬을 이어 놓은 듯 하늘에 걸린 형상을 드리웠고, 산천은 아름다운 비단과 같이 땅의 모습으로 깔아 놓았다. 이 모든 것이 道의 文인 것이다. 우러러 토해내는 빛을 보고, 구부려 품고 있는 무늬를 살피니 아래위로 자리를 정하였으므로 양의[天地, 陰陽]가 생긴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그것과 함께하여 성령이 갖추어진바 이를 일러 三才라 한다. 五行의 으뜸이 되며 실로 천지의 마음이다.[21]

윗글에서 '문의 덕'이나 '도의 문'을 제외하면 문학에 빗대어 易說을 풀어 놓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이 역학적이고 공자의 언어를 유협 자신의 버전으로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 보자. 위에서 '검고 누런색이 섞였다[夫玄黃色雜]'는 坤卦上六의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龍戰于野, 其血玄黃]" 및 이에 대한 풀이인 「문언전」의 "검고 누런 것은 천지가 섞인 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夫玄黃者, 天地之雜也, 天玄而地黃]"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어지는 '方圓體分'은 『대대례기』「증자천원」편에 나오는 "천도왈원, 지도왈방"에서 따온 것이다. '하늘에 걸린 상을 드리우다[以垂麗天之象]'는 離卦 단전, "리는 걸림이니 해와 달이 하늘에 걸리고 백곡 초목이 땅에 걸리다[離, 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에서 나온 것이다.[22] '우러러 토요를 살피고 구부려 함장을 살핀다[仰觀吐曜, 俯察含章]'에서 '앙관'과 '부찰'은 계사 하 2장에 나오는 "우러러 하늘의 상을 관찰하고 구부려 땅의 법칙을 보다[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에서 따온 것이며, '함장'은 곤괘 육삼 "빛나는 것을 머금어 가히 바르게 함[含章可貞]"에서 나온 것이다. '높고 낮음으로 자리를 정하다[高卑定位]'는 계사 상 1장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지고 낮고 높음을 베풀었으니 귀천이 자리한다[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에서, "양의(음양)가 이미 생하니[兩儀旣生矣]"는 계사 상 11장 "역에 태극이 있어 양의를 생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한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에서 따온 것이다. '오직 사람이 참여하여 성령이 모이니 이것을 삼재라 한다[惟人參之, 性靈所鍾, 是謂三才]' 중 '삼재'는 계사 하 10장 "삼재의

---

21) 『文心雕龍』 原道第一, "文之爲德也大矣. 與天地並生者何哉. 夫玄黃色雜, 方圓體分. 日月疊璧, 以垂麗天之象, 山川煥綺, 以鋪理地之形. 此蓋道之文也. 仰觀吐曜, 俯察含章, 高卑定位, 故兩儀旣生矣. 惟人參之, 性靈所鍾, 是謂三才. 爲五行之秀, 實天地之心."

22) 劉勰 著, 范文瀾 註, 『文心雕龍註』 上冊, 商務印書館出版(香港), 1960, 6면.

도이다[三才之道也]"와 설괘 2장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므로 역에서 여섯 획으로 괘를 이룬다[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에서 나온 말이다. "오행의 빼어남이 되어 실로 천지의 마음이다[爲五行之秀, 實天地之心]"는 『예기』 예운, "人者 (…) 五行之秀也", "人者 (…) 天地之心也"에서 나온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협은 '문의 덕'의 위대함이 '천지의 생성'과 함께한다고 하고, 천지의 형색과 일월산천의 아름다움이 모두 '도의 문채'라 하며, 앙관부찰하여 천지음양이 생기고, 오직 사람만이 천지와 함께하여 '삼재'가 되고 '오행'의 으뜸이 되니 이것이 실로 '천지의 마음'이라 했다. 공자의 계사전, 단전, 설괘전 등 십익과 역학과 유관한 『예기』를 요소요소에 인용하여 책머리에 쓰고 있다.

다음 구절은 두 번째 사례로 공자역과 더욱 깊은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 인류 문학[문화]의 기원은 태극에서 비롯되었다. 그윽이 신명을 도운 것은 易經의 卦象이 최초이다.[23]

유협은 인류의 문학[문화][24]이 태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유협이 말하는 '태극'은 어떤 것인가. '태극'의 최초 언급은 『장자』 대종사편에 나오고 『주역』의 「계사전」에도 나온다. 그러나 둘은 그 성격이 다르다. 『장자』에서는 태극을 만물의 시원으로 보지 않고 道보다 낮은 단계로 보지만 『주역』은 占筮의 출발점이자 음양 이전에 선재하는 존재의 시원[최초의 理 혹은 元氣]으로 본다.[25] 당연히 유협이 언급한 '태극'은 『주역』적 태극, 즉 계사 상 11장에서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幽贊神明, 易象惟先"에서도 그

---

23) 『文心雕龍』 原道第一, "人文之元, 肇自太極. 幽贊神明, 易象惟先." 배득렬은 '幽贊神明, 易象惟先'을 "신비한 도리를 심도 깊게 설명한 것은 『주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번역한다. 배득렬, 「梁 劉勰 撰 文心雕龍 「原道」篇 註解」, 『人文學志』 54,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17, 132면.

24) 일반적으로 '人文'은 '인류의 문화'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문학에 대해 말하기에 '인류의 문학'으로 새기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본 글에서는 '文'을 문학으로 새긴다.

25) 『莊子』 大宗師, "夫道 (…) 在太極之上而不爲高, 在六極之下而不爲深." 태극에 대해서는 정병석, 「太極 개념 형성의 淵源的 배경과 해석—太極 개념의 原生的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 88, 한국철학회, 2006, 45-46면 참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찬신명'은 설괘전 1장[26]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을 구조화하면, '태극→易象[괘상]→문학'이라는 흐름도가 이루어진다. '괘상'이란 역경의 8괘, 64괘 384효를 말하며 이는 陰[--]과 陽[—]의 두 기호로 이루어져 천지자연과 인간의 존재 양태와 유행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역상→문학'으로 이어질 때 괘효상의 상사[象辭] 즉 괘효사[易辭]가 개재된다. 왜 '辭'가 개재되는가. 음양의 기호로 상징되는 괘효상만으로 『주역』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상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의미를 간단하게 '글'로 달았다. 그래서 '繫辭'라 하고 그것을 문왕과 주공이 풀이했으며 공자가 십익으로 다시 부연 설명했다. 그마저도 상징과 비유와 은유[27] 등으로 이루어져 난해한 것이다.

유협은 '계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창작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괘상이 지닌 상징성과 괘효사와 십익이 지닌 은유법 및 비유법 등 다양한 어법은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괘효사에 내재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나 다양한 유형의 인간사, 지나온 역사적 사실 등을 묘사하는 언어에 담긴 함의는 풍부한 문학적 소재가 되고 창작의 기초재가 됨은 확실하다. 즉 『주역』의 괘상은 무한한 상상력을 유발하여 지식의 경계와 인식의 영역을 확장하고, 괘상에 달린 글과 십익의 글들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다.[28] 이런 측면에서 유협은 문학의 연원이 『주역』의 태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이다.

> 복희씨가 팔괘의 획으로 그것을[周易] 시작하고, 공자가 十翼으로 그것을 끝마쳤다. 건괘 곤괘 두 자리만 文言傳을 지었으니 언어의 문채요 천지의 마음이다.[29]

---

26) 1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27) 『주역』의 은유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박상준, 「은유게임으로서의 『周易』 독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구미숙, 「『주역』의 은유와 상징」, 『大同哲學』 96, 대동철학회, 2021, 23-53면을 들 수 있다. 구미숙은 "「역경」은 서로 이질적인 물상들을 하나의 괘효사에서 은유로 연결한다. 이처럼 『주역』은 고도의 은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논리정연한 철학적 명제에 익숙한 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한다.

28) 요약하면, 『주역』에 나타난 '상'으로 상상하여 영감을 받고 『주역』의 '글'로 창작의 불쏘시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역』이라는 것이다.

29) 『文心雕龍』 原道第一, "庖犧畫其始, 仲尼翼其終而乾坤兩位, 獨制文言, 言之文也, 天地之心哉."

여기서는 『주역』의 형성 과정이 복희의 팔괘에서 시작하고 공자의 십익이 끝이라고 한다. 유협은 공자가 천지를 상징하는 乾坤卦에만 언어의 문채인 「문언전」을 지어서 천지의 마음을 나타냈다고 한다. 유협이 십익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것은 「문언전」이 유일하며 이를 언어의 최상 표현이며 천지의 마음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앞에서 유협은 文心 가운데 '심'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창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지의 마음'이다. 이처럼 유협에 있어서 문심과 천심은 문학으로 통하여 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자.

> 文王은 우환에 처해서도 빛나는 卦辭를 지으시니 자연스러운 문채와 풍부한 은유로 정교한 내용을 심오하게 설명하셨다. 다시 주공이 다채로운 재능으로 문왕의 뛰어난 공적을 널리 알리고, 詩와 頌을 지으심에 많은 글을 첨삭하고 다듬으셨다. 孔子에 이르러 이전의 성인을 계승하시고, 홀로 이들을 뛰어넘으시어 六經을 다듬어 집대성하셨다.[30]

문왕이 유리옥에 갇힌 우환 속에서도 『주역』 64괘 괘사를 지었다는 내용은 계사전 하 7장에 나오며 다시 11장[31]에 부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괘사의 내용은 '자연스러운 문채와 풍부한 은유로 정교한 내용을 심오하게 설명'했다고 말한다. 이어서 주공을 거쳐 공자에 이르러 앞 성인을 뛰어넘는 자질로 6경을 집대성했다고 공자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협은 『주역』의 성문 체계가 '문왕-주공-공자'로 이어짐을 질서정연하게 말하고 있다. '괘사' '괘상' '십익', 은유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했다. 다음 다섯 번째 사례를 살펴보자. 1편 원도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다.

> 易에는, "천하의 움직임을 고무시키는 것은 辭[爻辭 등]에 있다."는 말이 있다. 辭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은 道의 문장이기 때문이다.[32][33]

---

30) 『文心雕龍』 原道第一, "文王患憂, 繇辭炳曜, 符采複隱, 精義堅深. 重以公旦多材, 振其徽烈, 剬《詩》緝《頌》, 斧藻群言, 至夫子繼聖, 獨秀前哲, 鎔鈞六經, 必金聲而玉振."

31) 계사 하 7장, "易之興也, 其於中古乎? 作易者, 其有憂患乎?" 계사 하 11장,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邪? 當文王與紂之事邪?"

위 내용 중 "천하의 움직임을 고무시키는 것은 말에 있다[鼓天下之動者, 存乎辭]"는 계사 상 12장에 나오는 글이다. 『주역』의 글귀[辭]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은 道를 담은 문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협은 원도의 첫머리에서 '도의 문'을 언급했으며 마지막에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道'는 어떤 도인가. 주지한 바와 같이 '도'와 같은 개념어는 유불도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易道'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순하다. '역도'는 무엇인가. 天道와 地道와 人道를 합친 개념이다. 유협은 천지자연의 법칙과 인사의 도를 담은 문장이어야 개인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나아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공자역의 다섯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편의 마지막까지 「계사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문심조룡』과 역학 특히 공자역과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를 『주역』의 논리 전개로 짚어보면, '천지의 마음-태극-복희 팔괘-문왕과 주공의 괘효사-공자의 말[辭의 효용]' 순서이고 각각에 공자의 사상도 언급되어 있다.

2) 50편 서지에 나타난 공자역 사상

유협은 책이 전체 50편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오랜 회포를 담은 (50편) 序志로서 많은 편들을 통괄하니 아래 하편의 자세한 성격이 드러났다. 각 편의 순서를 정하고 편명을 확정하여 大易의 數를 밝혔으니 그중에서 문장에 쓰임이 되는 것은 49편일 뿐이다.[34]

윗글은 이 책의 마지막 50편 서지에 나오는 것으로 『문심조룡』의 체제에

32) 『文心雕龍』 原道第一, "易曰, '鼓天下之動者, 存乎辭', 辭之所以能鼓天下者, 迺[乃]道之文也."
33) 이 부분의 번역에 여러 설이 있다. 특히 '辭'에 대해서이다. 河運淸(2002)은 '계사전이나 효사, 단사 등 周易에 나오는 모든 말'이라 하고, 배득렬(2017)은 이 글 전체를 '천하를 고무시켜 움직이게 하는 힘은 文辭에 있다. 文辭로 천하를 고무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도를 밝힌 문장이라 할 수 있다.'라고 文辭라는 일반 명사로 썼다. 김관웅·김정은 역주(2016)에서 '말과 글'이라고 하여 배득렬과 비슷하다. 한강백(韓康伯, 322-380)은 文辭라고 하고 주자도 같다. 유협이 주자를 알 리는 없고 한강백은 언급한 바가 없다. 유협은 易을 잘 아는 善易者이기에 周易의 문장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34) 『文心雕龍』 序志第五十, "長懷序志, 以馭群篇, 下篇以下, 毛目顯矣. 位理定名, 彰乎大易之數, 其爲文用, 四十九篇而已."

관한 언급이다. 여기서 핵심은 '大易의 數를 밝혔다[彰乎大易之數]'는 것이다. '大易'이란 『주역』 혹은 「계사전」을 높인 말이고, '수'는 『주역』 특히 「계사전」에 나오는 수를 의미한다. 책의 편제를 전체 50편으로 한 것은 「계사전」의 대연지수 50[35]에 따른 것이고, 순수 문학론을 49편으로 한 것은 대연지수 50에서 점칠 때 하나[1]를 제외한 49수를 따름으로써 '大易의 數를 밝혔다'라는 의미이다. 남은 1은 무엇인가. 유협은 여기에 대해 말이 없다.[36] 유협은 50편 서지를 이 책의 태극이라고 봤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50편 서지나 1편 원도를 이 책의 태극이라고 한다. 44편 總術이 태극이라는 주장도 있지만[37] 필자는 원도나 서지편을 이 책의 태극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한다.

책의 체제는 처음 지을 때부터 계획하는 중요한 '틀'이자 '뼈대'이다. 유협은 이 책을 지을 때부터 공자의 「계사전」에 나오는 대연지수 50이란 수를 염두에 두고 책의 전체 편수를 50편으로 하고, 시초점에 실지로 사용하는 49에 빗대어 서지편을 제외한 49편을 문학론으로 편제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역의 수를 밝혔다'라고 했으니, 이는 공자역의 정수가 온축된 「계사전」에 나온 역수론을 감안하여 책을 지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역의 수'를 밝히기 위해 편제를 총 50편으로, 문학론을 49편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50과 49란 수는 「계사전」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50편 서지에 언급된 49 및 전후 맥락에서 『문심조룡』은 공자역과 깊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다른 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후속 과제로 남긴다.

위에서 논의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이 책의 핵심 부분이 1편 원도와 50편 서지인데, 「계사전」으로 끝난 것을 보면 유협은 공자역에 머리를 두고 『문심조룡』을 저술했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유협의 이런 공자 존숭 사상은 공자역을 문왕역 못지않게 중시하는 학문 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협은 문학을 하려면 『주역』의 뜻을 體認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 단적인 예가 공자의 「문언전」을 '언어의 문채요 천지의 마음'이라고

35) 「계사전」 상 9장,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36) 현대의 주석가 주진보는 馬融의 설을 인용해서 여기의 1은 태극이라 했다. 劉勰 著 周振甫 注, 『文心雕龍注釋』,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83, 539면.
37) 김관수는 44편 總術을 태극이라고 한다. 김관수, 앞의 글, 197-198면 참조.

한 부분이다. 유협의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글귀가 「문언전」의 乾卦 초효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潛龍 勿用)'이다. 이 구절의 주체인 '물에 잠긴 용'에 대해 말하기를, '용의 덕[능력, 힘]을 가지고도 숨어 있는 자이다. 시류에 따라 변치 않으며 명성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 은둔하되 고민하지 않고,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는[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无悶, 不見是而无悶]' 사람[38]이라고 했다. 현실에 등용되지 않아 실망하고 울분에 찬 인재에게 공자는 천지의 마음을 실어 때를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유협은 이런 문장이 개인을 움직이고 사회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말처럼 문학을 할 때 시류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체득한 文心으로 '道의 글'을 지으라는 것이다.

3. 漢易 사상

『문심조룡』에 나타난 역학 사상의 두 번째는 한역 사상이다. 유협이 인용한 한나라 역학자는 京房(BC77-BC37), 鄭玄(127-200), 虞翻(164-233)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특히 『易緯』를 빼놓을 수 없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본다.[39]

1) 경방, 정현, 우번의 역학

먼저 경방 역학이 『문심조룡』에 나타난 경우를 보자. 25편 書記에 다음의 글이 나온다.

> 占치는 것은 몰래 엿보는 것이다. 星辰이 드러나고 잠복하매, 조짐을 은밀하게 살피며 관상대에 올라 천문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므로 占이라 했다.[40]

---

38) 공자는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을 군자라 했다. 『論語』 學而,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39) 이 부분은 洪增宏, 『道沿聖以傳經—《文心雕龍》反饋《周易》關係研究—』, 元華文創股份有限公司(臺北), 2017, 15-24면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40) 『文心雕龍』 書記第二十五, "占者, 覘也. 星辰飛伏, 伺候乃見, 精觀書雲, 故曰占也." '精'은 '登'이 되어야 한다고 범문란과 주진보는 말한다.

유협은 '占은 몰래 엿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무엇을 보는가. 길흉의 기미를 미리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신으로 '飛伏'을 말한다. 이처럼 유협은 '성신이 드러나고 잠복[星辰飛伏]'에서 경방의 飛伏說을 채용했고, 경방의 비복설을 가지고 占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신의 승강 즉 별들의 비복이라는 천문의 변화를 바탕에 두고 占이라는 管窺를 통해 길흉의 '드러남과 飛伏'을 몰래 볼 수 있다는 것이다.[41] 비복설을 매개로 천문의 변화를 占으로 연결하는 간명한 역리에서 유협의 한역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읽을 수 있다. 범문란은 이에 대해 경방의 『京氏積算易傳』을 인용하여 '비'는 음양이 드러난 것, '복'은 음양이 숨어서 은밀하게 도우는 것이라 했다.[42] 주진보는 '성신비복'을 '별들의 유동과 은복'이라 했다.[43] 또 하나 경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앞의 원도편에서 본 '仰觀吐曜, 俯察含章, 高卑定位, 故兩儀旣生矣. 惟人參之, 性靈所鍾, 是謂三才'가 경방이 역괘의 생성 원리를 말한 '聖人所以仰觀俯察, 象天地日月星辰草木萬物 (…) 兼三才而兩之'[44]에 근거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계사전」뿐만 아니라 경방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

다음은 정현 역학이 『문심조룡』에 나타난 경우를 보자. 앞에서 50편 서지의 '대역지수 (…) 49'에서 49는 「계사전」 상 9장, "대연지수 50, 기용 49"의 49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유협이 이 49를 채택한 데에는 정현이 천지지수 55에서 오행의 5를 감하여 대연지수 50이 되고 다시 1을 빼서 49가 된다는 주장[45]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역시 원도편에서 본 '人文之元, 肇自太極'은 정현이 『건착도』에 나오는 태극개념을 해설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한다. 정현은 『건착도』의 "孔子曰, 易始於太極"에서 '태극'을 "氣象未分之時, 天地之所始也"라고 했다. 정현의 이런 태극관이 '인류의 문학이 태극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창한 유협의 문학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

41) 드러난 길함 속에 흉함이 잠복해 있고 드러난 흉 속에 길함이 잠복해 있다는 길흉과 비복의 상호 이중적 구조는 음양의 호장기택과 비슷하다.

42) 범문란, 앞의 책, 484면, "文獻通考經籍考『京氏積算易傳三卷 雜占條列法一卷』晁景迂曰 (…) 陰陽之肆者謂之飛, 陰陽肇乎所配, 而終不脫乎本, 以隱蹟佐神明者謂之伏."

43) 주진보, 앞의 책, 287면.

44) 『京房易傳』 卷 下

45) 鄭玄, 『周易注』, "天地之數五十有五, 以五行氣通. 凡五行減五, 大衍又減一, 故四十九也."

괘변설, 방통설, 호체설을 주장한 우번 역학이 『문심조룡』에 나타난 경우를 보자. 40편 隱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 隱이란 문장 밖의 함축된 뜻이고, 秀는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 隱의 몸체는 뜻이 문장 밖에서 생기고 은밀한 소리가 두루 통하며 숨겨진 문채는 잠긴 채 발휘되니 爻象의 변화 互體가 흐르는 강물 속에 주옥이 숨겨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호체 변효로 변화하여 四象을 이룬다.[46]

유협은 우번의 방통설과 호체설로 문학의 '隱'과 '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방통설은 6효의 음양이 전부 변함을 말하는 것으로 괘변설의 일종이다. 호체설은 2, 3, 4효 내호괘와 3, 4, 5효 외호괘로 또 다른 6획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역시 괘변설의 일종이다. 둘 다 효변을 전제로 한다. 유협은 드러난 괘효상과 드러나지 않은 호체와 변효를 문학의 은수에 비유하는데, 괘효상은 눈에 드러났으니 문학에서는 '수'에 비유하고, 그 '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변과 괘변을 내장하고 있으니 그것을 '은'으로 나타낸 것이다. 강물 속에 숨겨진 주옥처럼 문장 속에 본뜻을 은밀하게 숨겨 놓음으로써[隱] 새롭고 참신한 비유적 표현이 생성된다. 비유적 표현은 호체 변효로 변화하듯 새롭게 상징적 실체 즉 四象[秀]을 만들어 외부에 드러낸다. 유협의 은수론은 『시경』의 '衣錦褧衣'와 『중용』의 '衣錦尙絅'과 맞닿아 있다.[47] 이 부분이 유협이 우번 역학에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2) 『易緯』 사상

『문심조룡』에는 『역위』가 지닌 역학 사상이 제법 분포되어 있다. 유협이 '正緯'편을 별도로 편제한 점에서 『역위』를 포함한 緯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 효용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역위』는 공자에 가탁하여 이론을 전개

---

46) 『文心雕龍』 隱秀四十, "隱也者, 文外之重旨者也. 秀也者, 篇中之獨拔者也.… 夫隱之爲體, 義生文外, 祕響傍通, 伏采潛發, 譬爻象之變互體, 川瀆之韞珠玉也. 故互體變爻, 而化成四象."

47) 이진명(미술비평・미학・동양학), '의금상경(衣錦尙絅)' 전시 서문: 「의금상경(衣錦尙絅, 비단옷 위에 삼(麻)옷을 걸치셨네.)」, 학고재 보도자료, 2023.1.18.

하니 공자역으로 대표되는 십익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울러 양한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위서로 경서를 해석한다[以緯解經]'는 학문적 기조가 있었다. 후한에 와서는 위서가 맹위를 떨쳐 '위서로 경서를 짓는다[以緯作經]'라는 말까지 나왔고[48] 일부에서는 지나친 도참사상으로 음양재이의 술수로 흐르기도 했다. 유협은 위서가 나온 시기와 흥성한 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통달한 선비가 조사하여 밝힌 것에 따르면 위서는 哀帝, 平帝에서 시작되어 東序祕寶[河圖]와 섞여 혼란하게 되었다. 光武帝 때에 이르러 술수를 깊게 믿어 세상에 풍미하게 되니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49]

유협은 위서의 시작을 전한 말 애제(B.C. 6-B.C. 1)와 평제(B.C. 1-A.D. 5), 흥성한 시기를 후한 광무제(25-57)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역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학사에서 『역위』의 성립 시기를 애제, 평제 때 즉 전한 말로 보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50] 『역위』에서 대표격인 『건착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빛나는 황하와 온화한 낙수, 이것이 하도와 낙서를 낳았다.[51]

윗글은 정위편 찬왈에 나오는 하도낙서에 대한 말인데, '온화한 낙수'는 『역위건착도』에 나오는 "공자왈, 제왕의 덕의 응함에 낙수가 먼저 따뜻해진다[孔子曰, 帝德之應, 洛水先溫]"에서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52] 원도편에 나오는 "하도는 팔괘를 잉태하고, 낙서는 구주를 품었다[若迺河圖孕乎八卦, 洛書韞乎九疇]"도 『역위건착도』에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41편 地理에 나오는 "사부에서 논한 것은 최근의 일인데, 터럭만큼의 오류가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니 하물며

48) 洪增宏, 앞의 책, 23면 참조.
49) 『文心雕龍』 正緯第四, "通儒討覈, 謂起哀平, 東序祕寶, 朱紫亂矣. 至於光武之世, 篤信斯術, 風化所靡學者比肩."
50) 료명춘 외 2인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2004, 198면 참조.
51) 『文心雕龍』 正緯第四, "贊曰, 榮河溫洛, 是孕圖緯."
52) 범문란, 앞의 책, 45면 참조.

경전을 연구하는 데서 어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는가![辭賦近事, 而千里致差, 況鑽灼經典, 能不謬哉!]"에서 '터럭만큼의 오류가 엄청난 차이를 유발한다[千里致差]'는 『역위통괘험』에 나오는 "터럭만큼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失之毫釐, 謬以千里]"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7편 樂府에 나오는 "사방의 풍속을 감화시킬 수 있었다[化動八風]"라는 말 역시 『역위통괘험』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53] 그러나 유협은 『역위』를 포함한 위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위서는 기본적으로 거짓이 많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나 경전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문장이 우수한 점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역학사적으로 보면 『역위』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역위』는 맹희와 경방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역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54]

4. 하도낙서 사상—圖書(象數)學

이 장에서는 『문심조룡』에 함유된 3번째 역학 사상인 하도낙서 사상을 논하며 그것이 송대 도서학의 선하이자 유협의 역학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언급한다. 유협의 하도낙서 사상의 근거는 공자가 지은 「계사전」 상 11장 "河出圖, 洛出書"이기 때문에 공자 사상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유협이 워낙 하도낙서 사상을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는 필수 기제로 사용했기에 아래에서 별도로 논한다.

유협이 『문심조룡』에서 공자 다음으로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하도낙서류, 이른바 '圖書[綠圖, 圖籙, 丹書 등]'에 관한 것이다. 하도낙서는 북송대 1,000년-1,100년 사이에 그림과 해설이 붙여진 圖象論으로 돌출하듯 갑자기 출현하여 시대를 풍미했다. 송대 이전에는 한대 유흠과 공안국이 잠시 설명한 것 외에 역학서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물론 『논어』, 『상서』, 『대대례기』, 『한서』 등에 언급은 되지만 그림의 실물이 나타나거나 易의 기원이라는 근본적인 논의는

53) 범문란, 앞의 책, 105면 참조.
54) 논자에 따라서는 『역위』의 사상이 孟京易學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반대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석미현, 「『역위(易緯)』의 우주론과 괘기설」,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유흠 등이 언급한 후 5백 년 정도 지난 뒤 문학가로 자처하는 유협이 『문심조룡』에서 하도는 역의 기원이고 낙서는 홍범구주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5백 년이 지난 북송대 도서역학자들은 유협과 동일한 주장을 제기한다. 하도낙서 논쟁사에서도 유협의 이 주장은 오래전에 하도낙서가 존재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55] 역학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주장이 문학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56]

1) 1편 원도에 나오는 하도낙서론

하도낙서에 대한 첫 언급이다.

> 하도가 팔괘를 잉태하고, 낙서는 구주를 품고 있었다. 옥판에 금문자로 새겨진 내용과 푸른 죽간에 붉은 글씨로 된 문채는 누가 한 것이냐, 역시 신묘한 이치일 뿐이다.[57]

여기에 하도와 낙서, 옥판금루와 단문녹첩에 대해 범문란과 주진보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58] 둘 다 유협이 하도낙서를 말하는 근거는 「계사전」 상 11장, "河出圖, 洛出書"와 『한서』 오행지에 나오는, "劉歆以爲虙羲氏繼天而王, 受河圖, 則而畫之, 八卦是也; 禹治洪水, 賜雒[洛]書, 法而陳之, 洪範是也"이라고 한다. 옥판금루와 단문녹첩에 대해서는 하도와 낙서를 말한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사고전서』 책임편찬자 紀昀(1724-1805)은 "玉板, 丹文, 綠字는 尙書緯書에 산견되며 (…) 모두 근거가 없다."[59]라고 한다. 아무튼 유협은 송대 도서역학자들이 말하는 하도와 낙서의 의미를 5백 년 전에 정확히 말하고 있다.

---

55) (淸)江愼修 著, 孫國中 校理, 『河洛精蘊』, 學苑出版社(北京), 2007, 373면. 附卷: 「河洛學發展概況-河洛之爭」
56) 여기서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다. 하나는 유협이 道家의 隱者들에게 전래되는 하도낙서의 실물 그림을 봤을 경우이고, 또 하나는 실물을 보지 못하고 「계사전」의 내용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만약 실물을 봤다면 이 책에 그 그림을 전재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실물은 보지 못하고 「계사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그림을 보고도 전재하지 않은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문학가가 당시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잊혀진 하도낙서의 유래와 효용에 대해 어느 역학가 보다 더 뛰어나게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57) 『文心雕龍』 原道第一, "若迺河圖孕乎八卦, 洛書韞乎九疇. 玉版金鏤之實, 丹文綠牒之華, 誰其尸之, 亦神理而已."
58) 범문란, 앞의 책, 8면. 주진보, 앞의 책, 5면.
59) 범문란, 앞의 책, 8면. 배득렬, 앞의 글, 111-112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문장은 복희와 공자 및 점법을 말하면서 하도와 낙서를 언급한다.

> 복희씨로부터 공자에게 이르기까지 태고의[여러] 성인들은 경전을 지으시고, 공자는 그것을 해설함에 (…) 하도낙서에서 형상[法]을 취하고, 시초점과 거북점으로 운수를 묻고, 천문을 관찰하여 변화를 꿰뚫고, 인문을 통찰하여 교화를 완성했다.60)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복희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인들을 거쳐 인문의 교화가 완성되는데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이 하도낙서라는 것이다. 즉 하도낙서에서 상을 취하고 법을 받아서 천지를 살피고 관찰하여 인문의 교화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인문의 교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면 시초나 거북으로 問占하여 장래의 運數[運命]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계사 상 11장에 나오는 "잡다한 것을 뽑아내며 은미한 것을 찾아내며 깊은 것을 끌어내며 먼 것을 불러들여 이로써 천하의 길흉을 정하며 천하의 부지런히 애씀을 이루는 것이 시초와 거북보다 큰 것이 없다[探賾索隱, 鉤深致遠, 以定天下之吉凶, 成天下之亹亹者, 莫大乎蓍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곳은 마지막 부분인 '찬'에서이다.

> 찬하기를, 도심은 은미하기에 신묘한 이치[神理:神道]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찬란한 성인[공자]께서 仁과 孝를 밝힐 때, 龍馬가 하도[龍圖]를 바쳤고, 거북이 낙서[龜書]를 올렸다. 천문을 보게 되니 백성들이 이를 본받았다.61)

'道心惟微'는 『순자』 해폐편 道經에서 인용한 "人心之危, 道心之微"에 나오는 내용인데, 東晋(317-420) 사람 梅賾이 之를 惟로 바꾸어 '道心之微'로 위조하여 『서경』 대우모편에 삽입하였고 유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도심지미'라 했다고

60) 『文心雕龍』 原道第一, "爰自風姓 暨於孔氏 玄聖創典 素王述訓 (…) 取象乎河洛 問數乎蓍龜 觀天文以極變 察人文以成化."

61) 『文心雕龍』 原道第一, "贊曰, '道心惟微, 神理設教, 光采玄聖, 炳燿仁孝, 龍圖獻體, 龜書呈貌, 天文斯觀, 民胥以傚.'"

범문란은 주장한다.[62] '神理設教'는 觀卦 彖傳에 나오는 "聖人以神道設教而天下服矣"의 '신도설교'와 같은 뜻이다. 유협은 도심은 알기 어렵기에 성인[공자]이 신묘한 방도로써 가르침을 베풀었고, 仁과 孝를 백성에게 밝힐 때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가르쳤다고 말한다. 즉 하도낙서가 인과 효의 교육 교재가 된 것이다. 이 글에 나오는 '천문'에 대해 주진보는 '천연적 문리'로 하도낙서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63] 이 주장대로라면, 백성들은 공자로부터 직접 하도낙서를 배우고 인효를 익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검토할 만한 주장으로 여겨진다.

2) 4편 正緯에 나오는 하도낙서론

'정위'는 위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이지만 50편 서지에서는 이를 "酌乎緯"라고 했다. '위서를 참작한다'는 뜻으로 문학의 근간 중에 하나로 본다. 유협의 뜻은 경서뿐만 아니라 위서도 참작하여 문학 활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는 유가의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유가의 경전을 본체로 하여 문학을 추구하는 '宗經主義者'이다.[64] 그는 경서 주석을 하는 경학가가 되고 싶지만 정현과 마융의 주석이 워낙 뛰어나서 자신의 입지가 없을 것 같아 문학으로 눈을 돌렸다고 고백했다. 유협은 『문심조룡』으로 문학을 경전의 끝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싶어했고 문학이 경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원했다. 이런 그가 왜 경전과 대칭인 위서를 문학 핵심론[文原論]에서 거론하는가. 위서는 거짓 내용이 많지만 형식적 수사 등 위서가 지닌 문학적 우수성은 문장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자 다수의 입장이다.[65] 그러나 유협이 위서의 문학성을 중시해서가 아니고 '경서를 바로잡기 위해 문원론에 넣었다'라는 유력한 반론도 있다.[66]

---

62) 범문란, 앞의 책, 11쪽. 배득렬, 앞의 글, 130면 참조.
63) 주진보, 앞의 책, 7면.
64) 팽철호, 「《文心雕龍・正緯》편의 성격 연구」, 『中國學論叢』 20,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2004, 133면. 김관수는 이를 유협의 '종경문학관'이라 한다. 김관수, 「≪文心雕龍・正緯≫篇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中國學論叢』 5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6, 81-82면 참조.
65) 『文心雕龍』 正緯第四, "事豐奇偉, 辭富膏腴, 無益經典而有助文章, 是以後來辭人, 採孫英華"
66) 김관수, 앞의 글, 2016, 78-84면 참조.

그럼 하도낙서는 왜 이 정위편에 나타나는가. 원래 하도낙서는 圖讖[讖緯]과 위서의 경계선에 있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讖', '圖', '緯'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이다. 일본학자 시바 로쿠로우(斯波六郎, 1894-1959)는 "유협은 하도와 낙서, 요임금의 綠圖와 문왕의 丹書 등 하늘의 상서로운 물건으로 성인에게 계시하는 진짜 위서와, 후세의 술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위서로 나누었다. 유협이 뜻하는 바는 위서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대한 바로잡음이다."라면서 예부터 도참, 도위, 참위라는 말이 있었고 도, 참, 위는 서로 동이점이 있으나 하나로 보아왔고 유협도 이런 관점에서 '위'라고 통칭했다고 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유학자들은 대부분 참위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讖은 참이고 緯는 위이다. 참은 기이하고 은밀한 언어로 길흉을 미리 판단한 것이고, 위는 경전의 지류이다. 아마도 진한 이래로 성인의 시대로부터 나날이 멀어지자, 儒者들이 이치를 따져 논설한 것들이 각자 서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전의 원문과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면서 술수의 말과 요망한 말들이 부회하여 참언과 합쳐졌다고 한다.[67] 현대 역학자 료명춘 등은 "讖은 일종의 신비적 예언이고, 緯는 육경에 대한 해석으로 그 둘은 서로 같지 않다"[68]라고 한다. 이들 의견을 토대로 유협의 하도낙서관을 유추해 보면, 하도낙서는 비록 도참서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경서의 대표인 역경과 홍범의 모태이다. 따라서 명칭이야 어떻든 경전의 상위의 존재이다. 그것을 정위편에서 밝히려는 것이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神道는 심오함을 밝히고 天命은 은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龍馬가 나오자 周易이 흥하고 신령한 거북이가 나와서 洪範이 빛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周易의 繫辭傳에서는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책이 나오자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라고 하니 이것을 이른 것이다.[69]

윗글에서 유협은 하도낙서란 말의 출처가 『주역』이라고 한다. 『주역』의

67) 이상의 내용은 김관수, 앞의 글, 2016, 87-89면을 부분 인용한 것임.
68) 료명춘 외 2인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2004, 198면.
69) 『文心雕龍』 正緯第四, "夫神道闡幽 天命微顯 馬龍出而大易興 神龜見而洪範燿 故繫辭稱河出圖 洛顧校作雒出書 聖人則之 斯之謂也."

기원이 하도이고 홍범의 기원이 낙서라고 단언한다. 만약 『주역』과 홍범의 기원이 하도낙서라면 당연히 하도낙서는 위서나 참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유협은 『주역』「계사전」을 앞세워 자신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도낙서는 오히려 『주역』과 홍범의 윗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도낙서의 제자리 찾기가 유협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협은 마지막 贊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 찬왈, 빛나는 황하와 온화한 낙수는 圖와 緯[圖書와 讖緯][70]를 낳았다. 신비한 보물 속에는 위대한 작용이 담겨 있으니 도리는 은밀하나 문채는 귀하다. 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들끓게 되니 거짓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아름다운 것만 채용해야 한다. (그림①-③ 참조)[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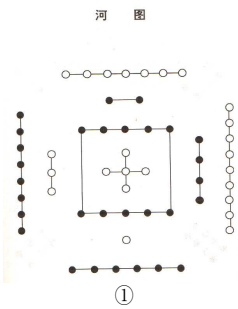
하도낙서가 양한 시대 성행한 도참사상을 견디며 오늘날 이어졌으니 후대 사람들은 가짜 위서류의 도서에 현혹되지 말고 『주역』에서 말하는 하도낙서에서 아름다운 문채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하도낙서를 통해 문학의 심미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취하라는 말인데, 문학가나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하도낙서는 그냥 點으로 이루어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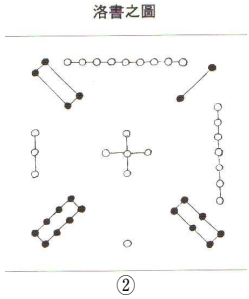
70) '圖緯'를 보통 하도낙서라고 한다. 김관수는 참위[도참, 도록]로 보면서 유협은 하도낙서를 위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유협은 도참은 하늘의 符命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람이 거짓으로 지은 위서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오류라는 것이다. 김관수, 앞의 글, 2016 84-85면. 필자는 '圖緯'에 하도낙서와 위서를 다 포함한다고 본다.

71) 『文心雕龍』 正緯第四, "贊曰, '榮河溫洛 是孕圖緯 神寶藏用 理隱文貴 世歷二漢 朱紫騰沸 芟夷譎詭 採其雕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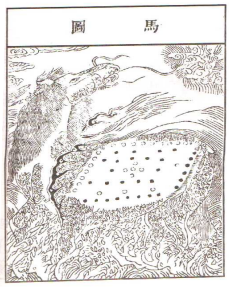
71) ①하도와 ②낙서는 주자의 『주역본의』에 실린 그림이다. 유협이 원 그림을 봤다면 ③일 것이다.



①



②



③

그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에서 직접 문학적인 요소를 취하기는 어렵다. 유협이 말하는 취지는 하도낙서를 보고 역과 홍범을 지은 성인의 안목과 내면의 진심을 통찰한 뒤 귀한 문채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유협이 이렇게 하도낙서에 매달린 이유는 한나라부터 성행하던 참위와 위서의 무리에서 하도낙서를 건져 경전의 모태로서의 지위를 찾게 해야 할 시대적 임무를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도낙서 이론은 공안국 유흠 등이 말하고 송대에 재론되어 시대를 풍미했다. 그 중간에 유협의 하도낙서론이 자리한 것으로, 천년 세월을 건너는 교량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심조룡』은 하도낙서 위상 정립에 큰 역할을 했고 나아가 송대 도서(상수)학의 선하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협의 하도낙서 사상은 문학계뿐만 아니라 역학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유협의 『문심조룡』을 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협은 위진 현학의 도가 시대에 몸은 불가에 의탁하고 유가를 가슴에 품고 공자에 머리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1년간을 승려로 지내고 57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儒佛道를 넘나드는 그의 평생은 역동적인 회통함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협은 30대 초반에 『문심조룡』이란 불후의 문학이론서를 후세에 남겼다. 문학서인 이 책에 어떤 역학 사상이 있는가. 필자는 이 책을 가로지르는 역학 사상의 큰 흐름은 세 줄기라고 봤다. 그것은 공자역과 한역 및 하도낙서 사상이다. 유협은 자신의 순수 문학론에다 이 세 개의 역학 사상을 접목하여 『문심조룡』을 완성했다. 유협은 왜 공자역과 한역 및 하도낙서를 역학 사상의 큰 틀로 삼는가. 그는 공자를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공자가 지은 「계사전」과 「문언전」을 중시하여 문학의 전범처럼 여겼고 또 공자역과 관련성이 깊은 하도낙서를 중시했다. 공자역과 하도낙서 둘 사이에 한역 사상이 있다.

『문심조룡』의 기본론은 앞 5편인 1편 원도, 2편 징성, 3편 종경, 4편

정위, 5편 변소이다. 이를 50편 서지에서 풀이하기를 '도에 근본을 두고[本乎道] 성인을 스승으로[師乎聖] 경전을 본체로[體乎經] 위서를 참작하여[酌乎緯] 초사에서 변한다[變乎騷]'라 하면서 이를 '문학의 근간[文之樞紐]'이라 했다. 이때 성인은 유가의 성인—공자—이고 경전은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 5경 혹은 6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편 원도와 마지막 50편 서지이다. 따라서 역학 사상의 큰 맥도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1편 원도에 드러난 공자역 사상의 대표적인 것은 '인류 문학의 기원은 태극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언급이다. 이 글을 언뜻 보면 문학은 『주역』의 태극에서 시작되었다는 논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논리는 순수 문학적인 동기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또 공자의 「문언전」이 아름다운 문채이며 천지의 마음이라 하면서 자신의 책도 이에 기반하고 있고 문학 역시 그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유협의 이런 역학적 문학관은 50편 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체제가 50편이고 그 중 문학론을 49편으로 구성한 이유가 『주역』 「계사전」의 대연지수[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대역의 수를 밝혔다[彰乎大易之數]'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한역 사상은 한나라 경방, 정현, 우번의 역학이 나타난 각 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협은 특히 『역위』가 중요하다고 봤다. 『역위』가 한나라 위서이기는 하나 거기에 담긴 문학성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역위』는 4편 정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협의 하도낙서 사상은 공자역과 공자 사상의 범위에 있지만 별도의 차별성도 있다. 기원 전후 유흠 등이 하도는 역의 기원이고 낙서는 홍범구주의 기원이라고 말했으나 당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하도낙서는 참위와 위서의 무리로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잊혀져 갔다. 그로부터 5백 년이 지난 뒤 공자역의 입장인 유협은 이 책을 통해 하도가 역경의 근거로, 낙서가 홍범의 모태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했다. 그때 제시한 근거가 공자의 「계사전」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였다. 또한 유협은 4편 정위에서 하도낙서가 양한시대의 도참사상을 견디며 오늘날 이어졌으니 후대 사람들은 가짜 위서류에 현혹되지 말고 『주역』에서 말하는 하도낙서에서 아름다운 문채를 취하라고 말한다. 하도낙서에 대한 그의 변론은 당대에 그 진가가

발휘되지 못했고 다시 5백 년이 지난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바로 송대에 흥기한 도서상수학으로, 유흠 이후 천년 뒤에 하도낙서론이 시대를 지배했다. 하도낙서론이 역사의 물결을 헤쳐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유협이 교량 역할을 했고 그의 도서론은 송대 도서학의 선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역학 사상은 서로 연결된 易理 체계로서 유협이 문학 원론를 세우는 지적 기반이 되었다. 어떤 사상은 이 책의 순수 문학성을 고양시키고 어떤 사상은 문학적 철학성을 깊게 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요약하면, 유협은 유가 사상에서 철학성이 가장 뛰어난 역학 특히 공자역[공자 사상 포함] 등을 문학에 잘 녹이고 다른 사상과 섞어서 책을 완성한 것이니, 『문심조룡』이 불후의 명작이 되는 데 역학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심조룡』이 처음 언급된 것은 신라시대 890년에 편찬된 최치원의 「낭혜화상비」이다.[72] 고려 시대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지만 당연히 유행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조선 시대에는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어 장유, 임숙영의 글에서 보이며 18세기부터 『문심조룡』이 언급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정조, 이덕무, 강이천, 정약용, 김정희, 성해응, 이규경 등의 논저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이덕무, 강이천 등의 『문심조룡』 인용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73] 특히 성해응은 『문심조룡』을 '說經之餘論'이라 평가하여 『문심조룡』의 핵심사상이 종경 사상임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연구도 있다.[74]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유협의 문학사상과 역학사상이 소강절의 문학과 도서역학에 미친 영향과 이것이 다시 조선에 미친 영향, 즉 상호 연결 고리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그것을 다루지 못했지만 추후 연구 주제로 손색없다고 판단된다.

현대에 들어 문학계에서 『문심조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중국문학 전공자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말했듯 우리 역학계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본 논문이 아마 최초의 역학적 분석으로

72) 박현규, 「한국에서의 ≪文心雕龍≫ 流傳樣相—신라・조선시대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53, 중국어문학회, 2009, 169-192면.
73) 박현규, 앞의 글, 176-189면 참조.
74) 김관수, 앞의 글, 2016, 83면 참조.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卷八≫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이 문학 전공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 역학계 연구의 선행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의 홍증굉의 통계에 보이는 『문심조룡』에 인용되는 십익의 횟수는 단전 38회, 상전 16회이고 「계사전」은 92회나 되니 이와 관계된 문예론을 연구하면 문학과 역학의 간학적인 새로운 논지가 개발되고 참신한 이론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문심조룡』이 품고 있는 역학 사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부분을 탐색하여 유협 문학론의 어떤 지점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려 한다.

▮ 참고문헌

『文心雕龍』, 『周易傳義大全』, 『論語』, 『莊子』, 『京房易傳』, 『周易注』, 『孤雲集』

劉 勰 著, 范文瀾 註, 『文心雕龍註』 上冊, 商務印書館出版(香港), 1960.
劉 勰 著 周振甫 注, 『文心雕龍注釋』,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83.
洪增宏, 『道沿聖以傳經—《文心雕龍》反饋《周易》關係研究—』, 元華文創股份有限公司(臺北), 2017.
(淸)江愼修 著, 孫國中 校理, 『河洛精蘊』, 學苑出版社(北京), 2007.

료명춘 외 2인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2004.
유 협 저, 김관웅・김정은 역, 『문심조룡』, 을재, 2016.

구미숙, 「『주역』의 은유와 상징」, 『大同哲學』 96, 대동철학회, 2021.
김관수, 「≪文心雕龍・正緯≫篇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中國學論叢』 5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6.
_____, 「'大衍之數'와 ≪文心雕龍≫의 체계」,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7.
김민나, 「『文心雕龍』 第五十 序志篇 譯註」, 『중국어문학지』 21, 중국어문학회, 2006.
박상준, 「은유게임으로서의 『周易』 독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박현규, 「한국에서의 ≪文心雕龍≫ 流傳樣相—신라・조선시대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53, 중국어문학회, 2009.
배득렬, 「梁 劉勰 撰 文心雕龍 「原道」篇 註解」, 『人文學志』 54,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17.
석미현, 「『역위(易緯)』의 우주론과 괘기설」,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7.
성기옥, 「『文心雕龍』의 성립배경과 후인들의 연구과정 고찰」, 『중국문학이론』 11・12, 중국문학회, 2009.
유병갑, 「≪文心雕龍≫<原道>篇硏究」, 『中國語文論叢』 85, 중국어문학회, 2018.
王小盾, 「≪文心雕龍≫和≪周易≫的關係」, 『중국문학이론』 5,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5.
이진명, '의금상경(衣錦尙絅)' 전시 서문: 「의금상경(衣錦尙絅, 비단옷 위에 삼(麻) 옷을 걸치셨네.)」, 학고재 보도자료, 2023.
정병석, 「太極 개념 형성의 淵源的 배경과 해석—太極 개념의 原生的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 88, 한국철학회, 2006.
팽철호, 「《文心雕龍・正緯》편의 성격 연구」, 『중국학논총』 20,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2004.
_____, 「『文心雕龍』 번역의 한 가지 모델」, 『중국학논총』 23,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2007.
_____, 「『文心雕龍』 출현의 역사적 배경」, 『중국문학이론』 4,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4.
河運淸, 「劉勰의 文學理想論考」, 『中國語文學』 39, 중국어문학회, 2002.

【Abstract】

Analysis on the core idea of *I-Ching* contained in YuHyeop's *WénXīnDiāoLóng*

Cho, Hie-Young*

YuHyeop's *WénXīnDiāoLóng* (劉勰의 文心雕龍) is the best scriptural literary theory book in China and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later generations. He was well versed not only in literature but also in I-Ching. The trajectory of Yuhyeop's life is unique. He relied on Buddhism even though he was in the era of the Taoism of Weijin and Hyunhak at the time. Although he lived in a temple, he lived with Confucius at his head and Confucianism at his heart, and ended his life as a monk. In this way, Yuhyeop lived his whole life with an attitude of reconciliation, cross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and the process was dynamic. With such resilience and dynamism as an asset, he left a great literary book called *WénXīnDiāoLóng* to posterity. The basic theory of *WénXīnDiāoLóng* is Wondo (原道) in the first part, Jingseong (徵聖) in the second part, Jonggyeong (宗經) in the third part, Jeongwi (正緯) in the fourth part, and Byeonso (辨騷) in the fifth part, which is called "the basis of literature [文之樞紐]" At this time, the saint is the saint of Confucianism — Confucius — and the scriptures refer to the 5 or 6 classics of Confucianism compiled by Confucius.

The basic theory of *WénXīnDiāoLóng* contains *I-Ching* thoughts deeply. The main I-Ching ideas are Confucius thought of *I-Ching* (공자역易傳 사상), the Han Dynasty's *I-Ching* thought (漢易 思想), and the *Hetu Luoshu*'s thought (하도낙서 사상). Among them, Confucius thought stands out. YuHyeop also valued the *Hetu Luoshu*,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Confucius's role while being in the category of Confucius' thought. There is a the Han Dynasty *I-Ching* thought between the Confucius' *I-Ching* and the *Hetu Luoshu*, and he thought *Yeokwi* (易緯) was especially important. These three thought of *I-Ching* of dynamics are a connected system of theory of I-Ching and a related intellectual foundation, and played a major role in elevating the pure literary quality of this book and bringing out its philosophical quality in depth, placing this book in the ranks of scriptures. Why does Yuhyeop take *I-Ching* and Confucius as important ideological backgrounds for this book? It is because Yuhyeop knew that

* Associate Researcher, Inst. of humanities, Chosun Univ.

I-Ching had answers to the end and start of heaven and earth and introspection on what humans should do and what they should avoid, through which they pursued the unity of heaven and man. Since Confucius was a person who reborn *I-Ching*, a book of divination, into a philosophical book and completed it, Yuhyeop made Confucius' thought the main axis of the literary and philosophical thought of *WénXīnDiāoLóng*. In summary, Yuhyeop wrote this book by incorporating well into literature the epitome of Confucian scriptures, especially the Confucius translation [including Confucius's thought] and the Five Classics compiled by Confucius. Currently, research on this book is being conducted in the literary world, but there is no research *I-Ching* field.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to the literary world, and follow-up research on the world of *I-Ching* is expected by using this article as a cornerstone.

Keywords: YuHyeop (劉勰), *WénXīnDiāoLóng* (文心雕龍), Confucius' *I-Ching* (孔子易), Han Dynasty's I-Ching (漢易), *Hetu Luoshu* (河圖洛書).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